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강준식(김정연B), 공인석(김명숙), 김규찬(최효자), 김근봉, 김길자, 김정태(유은자), 김정배(임승주), 김정환(임영미), 김춘화, 맹관순, 박영순, 박종삼(이영원), 송부현(김영진), 신현진(이은경), 윤정호(유옥자), 이기자, 장영원(김옥자), 장성자, 전순봉, 정영심, 조규영, 주경덕(이경자), 주성탁, 천세력(영영분), 최상걸(이미향).(총26명)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 강준식(김정연B), 공인석(김명숙), 김경엽, 김규찬(최효자), 김근봉, 김기택(배숙자), 김길자, 김순옥, 김원재, 김정태(유은자), 김정배(임승주), 김정환(임영미), 김춘화, 김희규, 박복래, 박영순, 박종삼(이영원), 석형기(이희순B), 손정아, 송부현(김영진), 윤조훈(이연숙), 이기자, 이선미, 이한웅, 이황교, 이희환(오희정), 장영원(김옥자), 장성자, 전순봉, 천세력(영영분).(총31명)

☞ **감사헌금**
문수경, 김경태, 김규찬(최효자), 김병율(이영숙), 김수자, 김준익, 김현구(서재희), 박금엽, 박부웅(최귀남), 신민아, 이월숙, 이인숙, 이효숙, 장성자, 전순봉, 정영심, 채명엽, 최상걸(이미향), 황영록.(총19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래, 김민성, 김민혁, 김수현, 김정훈, 김준현, 김지훈, 김경숙, 김춘화, 민옥희, 박은숙, 박정숙,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서재희,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노을,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미영, 이설아, 이옥남, 이인숙, 정옥순, 주성탁, 최귀남, 최봉순, 최선미, 홍은민, 홍준민, 황영록, 무명.(총42명)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2015년 제25주 : 열왕기하 9장 1절 - 11장 12절				
주 일	열왕기하 9장 1 - 13절			
월요일	열왕기하 9장 14 - 26절	목요일	열왕기하 10장 12 - 27절	
화요일	열왕기하 9장 27 - 37절	금요일	열왕기하 10장 28 - 36절	
수요일	열왕기하 10장 1 - 11절	토요일	열왕기하 11장 1 - 12절	
원로장로	이태일			
사무장로	정기성 윤조훈 방석태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욱 장영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강 도 사	김성종		
	전 도 사	이필래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승이 최유경		
찬 양 대	지 휘 자	할 렘 루 아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 온 · 예 멘 : 최원지 엔 켈 : 이난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강민주 김미희 김상훈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트	김안나 박선희 고광훈		
선 교 사	파송선교사	대 국: 김경숙 수리남: 안석렬 이성욱 A X 국: 박동권 김명화	이집트: 김신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옥	
	협력선교사	대 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대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화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5. 6. 14 주일 예배 설교

광주리를 타고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32-33절 설교: 이진우 목사
바울이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자 첫 번째로 만난 위험이 바로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제 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며 사도바울을 죽이려 할 때 바울의 제자들은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림으로 사도바울을 그들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삼십육계비본법에서 서른여섯 번째 계책은 더 이상 해를 방법이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즉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피하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어려서어 보이고 지는 것 같으나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되고 나중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도피하여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성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던 여리고성 정탐꾼 두 명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려서 성 밖으로 나가서 무사히 귀환 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도피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라고 했습니다. 즉 용이 해를 입은 여자를 핍박하여 삼키려고 할 때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피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피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가운데 있을 때 혹은 수많은 인생의 낙심과 괴로움 속에서 그곳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평안하시오 기쁨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모험을 하게 하시고 인생의 위기를 주십니까? 성도는 이 모든 일까지도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의인을 죽이려는 악인의 계교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도망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돕는 자가 반드시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등지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휼과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그 삶속에 친히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 가운데 피하게 하시고 지키시며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항상 함께 할 수 없으나 성령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만약 오늘의 이 시간에 깊은 사망의 골짜기요 낙심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이라면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들로 우리를 돕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바로 어려움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돕는 참된 성도가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의인이 순교하도록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의인에게 도망할 기회와 길을 만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피할 길이 열리고 물러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지혜로운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그 말씀에 집중하며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광주리를 준비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낙심되며 괴로운 일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주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요나처럼 광풍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광주리를 통하여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광주리는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10절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과 슬픔의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과 27장과 27장 43절에서는 사도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방인이요 그의 자유를 억압하는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까지도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돕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광주리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광주리는 곳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눈에 닿장 안 보일 뿐이요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신앙, 순종의 신앙, 예수로 인하여 의인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요, 세우시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광주리로 우리를 도우시며 피하게 하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1 - 25

2015. 6. 21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순서 6월	1부	3부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기도	기도	성경봉독	사회	기도	기도
1주(7일)	최상길 집사	정기성 장로	이명원 권사	강영성 장로	장윤주 집사	유옥자 권사
2주(14일)	최성현 집사	윤조훈 장로	정옥순 권사	윤병호 장로	이기자 권사	이강우 권사
3주(21일)	박종삼 집사	윤병호 장로	손명화 권사	김병을 장로	홍정훈 집사	박순자 권사
4주(28일)	김성욱 집사	강영성 장로	정계숙 권사	윤병호 장로	최상길 집사	강은미 권사
예배안내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